

2011.10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1년 10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일시	장소	참석인원 수		비고
		위원	방송국	
2011.10.26	대전MBC 대회의실	8/11	6	

○ 시청자위원 불참자(3명) 명단: 여운철, 안정선, 신현대 위원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 고대석 사장, 강덕원 경영기획국장, 김미리 편성제작국장, 임양재 보도국장, 정갑관 기술국장, 장래균 기획심의 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1	6	7	2	1	17	-	17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계
건수	5	11	1	17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 건	- 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해당사항 없음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오락	'한빛주간 콘서트'는 가을의 정취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의미있는 음악회였다. (김경옥, 김영광 위원)	보다 좋은 음악회를 시청취자들에게 선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편성 의견참고
교양	<시시플러스-막을 수 있는 불행, 자살>은 노인 자살율이 높아 충격을 받았다. 노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였다. (김경옥 위원)	앞으로도 자살뿐 아니라 노인 문제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취재, 방송하겠다.	편성 의견참고
교양	대전의 학생들이 타 시,도로 자율형 사립고 진학률이 높다. 대전의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서 <시사플러스>에서 다뤘으면 좋겠다. (김경옥 위원)	대전의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했다. 심도있는 회의를 거쳐 대전의 학생들이 왜 타,시도로 나가는 지 파악해 보겠다.	편성 의견참고
교양	<무열왕의 꿈, 갯위강국>은 대전MBC의 역량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그러나 내용이 더 치밀했으면 좋았고, 성우의 목소리가 아쉬웠다. (방기봉, 유치벽, 김진국, 김경숙 위원)	관심에 감사드리며 역사물이다 보니 전문가 시점에서 너무 자세한 구성보다는 전 연령대에서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전개하는 것에 맞췄다. 나레이션의 경우 최근 다큐 및 CF에서 각광받는 조원희라는 배우의 목소리를 썼는데 역사물의 해설로 약간 힘이 부친 느낌이 들었다고 평가하며, 향후 특집다큐에서는 보다 호소력있는 목소리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	편성 수용
교양	지자체의 예산부족으로 소외계층에 대해 관심이 적다. 소외계층을 위한 캠페인을 일찍 시작했으면 한다. (방기봉 위원)	가급적 시일을 앞당겨 소외계층을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편성 의견참고
보도	<재선거 후보자 초청토론회>는 시간의 부족으로 시청자가 후보자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한계를 드러냈다. (유치벽 위원)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다. 로컬방송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것이 70분이었다. 후보자가 5명이면 최소 80분은 넘어야 했다.	보도 수용
교양	<시사플러스>진행자의 발음이 정확해서 좋는데 반해 역할이 적다. 많이 개입했으면 좋겠다. (김진국 위원)	현재 3명의 PD가 제작을 하고 있어 어려운 점이 있으나 진행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제작을 하도록 개선하겠다.	편성 의견참고
보도	<시사분석>은 사투리가 적어지고 패널선정이 좋아졌다. 그러나 격론을 벌이도록 진행자가 유도할 필요가 있고 시청자 참여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김진국 위원)	말 그대로 패널 간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보도 의견참고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교양	라디오 개편이 있었는데 지역민방에 비해 입체감 있고 역동적인 느낌이다. (김재영 위원)	앞으로도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노력하겠다.	편성 의견참고
보도	지역뉴스는 너무 짧다. 서울처럼 분석이 있는 심층 리포트가 필요해 보인다. (김재영 위원)	심층 리포트물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보도 수용
방송편성	역량이 집중된<무열왕의 꿈,갱워강국>의 금요일 늦은 밤 편성은 아쉬운 감이 있다. (김재영 위원)	편성은 본사의 수중계 영역과 자체편성 가능영역이 따로 운영된다 보니 다큐를 방영하기에 최대한 좋은 시간대라고 생각되는 MBC 스페셜 시간대에 편성했다. 초저녁의 경우 시트콤과 드라마로 인해 편성이 불가하고 주말의 경우 낮 시간에 편성하기에는 몰입에 방해가 되어 그나마 최선의 시간대에 편성했다고 생각한다.	편성 반론
스포츠	<동아일보 2011 공주마라톤>은 캐스터와 해설자의 호흡,영상 등 모든 면에서 로컬의 매력을 보여줬다. (김재영 위원)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편성을 통해 지역민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다.	보도 의견참고
교양	<무열왕의 꿈,갱워강국>은 일본 등 널리 방송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육자료로서 학교에도 배포했으면 한다. (김경숙,김영광 위원)	대전시교육청 및 충남교육청과 교육용 교재로 채택여부를 협의 중에 있다.	편성 수용
기타	젊은 층이 TV 시청을 안 하고 있다. 젊은 층을 끌 수 있도록 대학생 모니터를 운영하면 어떨까 (김경숙 위원)	신문방송학과등 방송관련 학과의 교수진과 규모와 방법등을 놓고 협의와 검토를 거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대학생 통신원을 비롯해서 대학생들이 대전 MBC 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	편성 의견참고
보도	방송대상 수상기념으로 <잊혀진 재앙>을 재방송 했으나 고지가 없었다. (김영광 위원)	예고방송은 했다. 좀 더 시청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보도 의견참고
보도	뉴스데스크의 백세트가 산뜻하니 좋다. 그러나 남자 앵커 쪽이 다소 어두운 느낌이다. (김영광 위원)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	보도 수용
보도	아침 뉴스는 따뜻한, 행복한 아이템이 많았으면 좋겠다. (장인순 위원)	따뜻한 보도 아이템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	보도 의견참고